

道具와 環境

俞炳林 譯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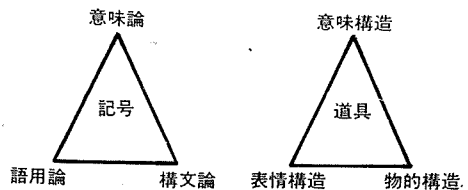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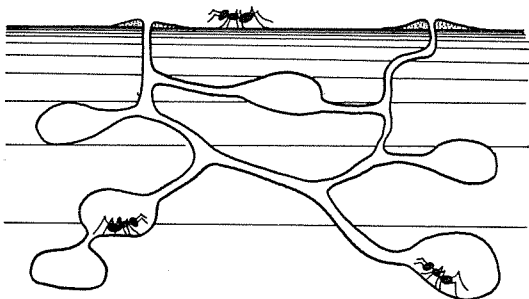
本稿는 “人間環境의 探求”라는 題目으로 日本 産業Design 研究所가 建築 및 環境關係 雜誌「SD(Space Design)」誌(72년10월)에 기고한 記事를 譯編한 것이다. 最近 台頭되고 있는 人間環境의 再認識이라는 問題와 關聯해 우리 周圍의 環境과 空間을 美的認識活動의 場聯이라는 立場에서 考察한 것인데, 建築學徒는 勿論 一般人에게도 새삼 環境이라는 意味를 되새겨 볼 수 있는 有益한 機會가 될 것이다.

요사이 처럼 環境이라는 말이 氾濫하는 時代도 없다. 生活環境은 勿論이고 自然的, 生物學的 環境要因에 이르기까지 실로 多樣하게 쓰이고 있다. 環境이라고 할때, 우리는 좀 애매하게 記述하기쉬운데 이것은 어떤 體系(system) 내에서 主體에 對한 明確하고 具體的인 構造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면 環境論이 道具를 主體로 한 것인가 또는 人間을 主體로 한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兩 樣한 것이 된다. 그러한 主體와 環境關係를 明確히 한 後에야 解釋의 作業이 始作되는 것이다. 이제까지로 道具와 人間에 對한 密接한 關係가 어느 程度는 理解되겠으나 道具의 生態와 特徵은 결국 人間하고의 關係인 것이라 하겠다.

道具는 人間이 만든 것이고 使用되며 또 人間에 依해 消滅하는 것이다. 또 한편 으로는 人間은 自己가 만든 道具의 作用을 보고 좋아했다 喜悅했

다 한다. 이것은 昆蟲과 植物에서 觀察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關係는 各己 自己存立에 必要한 物性的 作用에 依해서만 結合되는 것은 아니다. 道具는 人間으로부터 愛情과 憎惡를 받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人間이라고 하지만 실은 人間の 集合體인 社會制度라든가 世代라든가, 또 性, 또는 個人差의 葛藤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의 罅를 메울려고 하는 努力, 또 道具를 만든다든가, 使用한다든가 하는 人間の 慾望이 映혀 있는 것이다. 道具와 人間과의 關係를 상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자.

어떤 主體에 對한 環境이란 것은 그 主體가 浸透되어 있는 空間의 한 形態이다. 空間이란 것은 모든 物體의 媒介的인 存在로서 언제나 가깝게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空間은 여러 學問분야에서 論難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空間은 여러 分野에 있어서 認識論의 共通的인 觸手가 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例로서, 數學의 集合論에 있어서는 사람이라든가 物體뿐만 아니라 개념의 集合도 空間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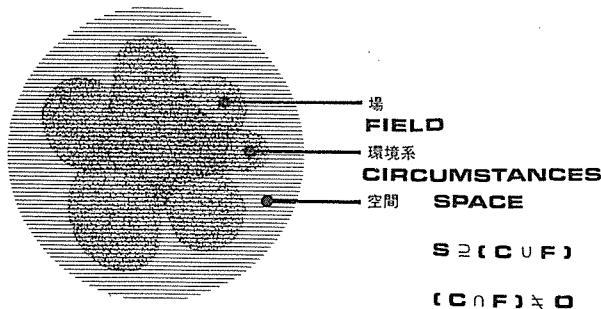
하여간 모든 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集合되어 있다고 할때 여기에 共通된 基本的인 性質을 알아보면 視空間의 位置의 連續態이며 計量的 構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간은 계량적인 뜻에서 原子核의 체제에서 시작되어 炭素의 容積, 住宅, 都市 그리고 大宇宙까지도 包含한다.

空間과 關聯해서 環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場面을 생각해보자. 푸른 草原의 수목 사이를 힘차게 달리는 말위에 총을 가진 人間이 앞에는 잘먹어서 길들인 시끄럽게 짓어대는 兎를 데리고 이미 체력과 主력의 限度에 다달은 兎친 여우 새끼를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瞬間을 상상해 보자. 이럴 경우 동물, 식물, 銃, 兎, 땅덩어리 모두는 人間の 環境에 ダイナ믹하게 共有되어 있다. 고 보겠다. 그러나 各各은 各기 環境에 對한 立場이 다르다.

人間에서 보면 滿足이고 여우로 보면 공포, 銃은 총의 役割을 발휘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갖고 있는 環境이다. 道具에 있어서의 環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둘러싸는 体系(system)에 있어서의 道具와 人間을 包含한 關係對象속에 道具的인 스케일이 미치는 空間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道具로서 이루어지는 環境은 道具의 作用의 可能性과 維持를 左右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大別해 볼 수가 있겠다.

1. 다른 道具와의 分간, 分別의 難易
2. 그것이 浸透하고 있는 물과 大氣의 狀態
3. 그것이 設置될 수 있는 立地一床, 壁, 天井, 大地의 狀態
4. 情報가 交換되는 範圍와 相對.
5. 특히 人間과의 接觸密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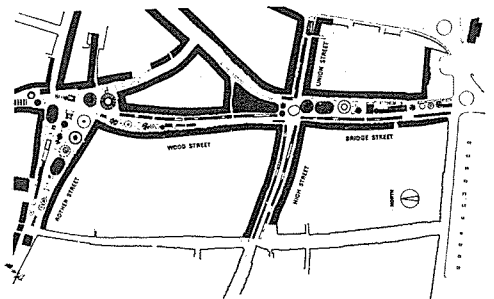


<空間・環境・場>關係圖

道具로서의 環境은 그道具 個體의 歷史에 따라서 分다

첫째, 道具가 製作되기 前의 環境.

둘째, 道具가 製作된 다음의 環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 1의 環境에 있어서는 道具를 만든 人間의 背景으로서 영커있는 社會制度와의 關係가 「크로즈·업」 될 것이며 제 2의 環境에 있어서는 人間과의 情報交換의 問題가 「크로즈·업」 될 것이다. 그래서 道具로서의 環境을 論할 때는 도구라는 物性的인 面만으로는 不足한 것이다. 즉 環境으로서의 道具가 人間으로서 心的形成에 있어서의 影響을 준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契機로 한 現象일까가 問題인 것이다. 人間이 다른 人間을 包含하는 環境으로서의 直接的인 作用의 方法으로서 對話라는 것이 있다. 대화라는 것은 人格과 人格間의 意志의 소통이다. 그 對象으로서의 當신의 눈앞에 있는 相對라고 해도 좋고 그의 뇌리에서 상상하고 있는 바로 自己自身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또 書籍이나 作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人間이라든지 人格化되어 있는 生物, 自然, 人工의 그 무엇이든 좋다. 道具에 對해서 진술한다는 것은 그중의 하나이다. 人間이 對話에 期待한다는 것은 一種의 自己의 開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對話의 姿勢에 기초를 둔 人間의 思考와 行動이 비로소 人間の 生活이라고 規定지을 수 있다. 대화의 자세에 기초를 두지 않는 人間の 사고와 행동의 결과는 쟁탈이다. 그것은 生活이 아니고 生存인 것이다. 人間이 生活을 영위하는 空間을 우리들은 場이라고 한다. 場은 人間の 生活과 같이 있고 人間の 生活이 끝나면 消滅되는 空間이다. 다시말하면 場은 人間이 있으므로 본래 잠재적으로 있었다가 대화의 상대를 얻으므로 對話的인 活性化가 이루어지는 空間이다. 場은 그러므로 그 自然 또는 人間에



依해서 설정되고 설정되기 以前에 그러한 空間에서 發生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구를 극히 一般의인 方向으로 取扱해 왔다. 도구가 지니고 있는 社会性이라는 見地에서 어떤 水準에 位置하고 있는 問題를 檢討해 보겠다. 도구의 量産方式의 표준화 이후 生活공간에 밀려들어온 도구群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強力한 計劃性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할 必要性을 가지게 되었다. 道具關係의 再構成에 依해 道具 相互間, 道具와 人間사이의 새로운 안정된 環境系의 실현을 目的으로한 전체적인 도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음의 條件, 即

- 1) 單一体나 集合으로서 人間을 保有할 수 있는 방법과 그 積分인 容積(volume)을 가질 것.
- 2) 특히 生活空間의 内部에 對해서 使用되는 것
- 3) 그러한 綜合的인 結果로서 場을 形成하는 힘을 갖는 것.

이 세가지를 充足시키는 道具를 探搜한 결과 環具의 概念에 到達한 것이다. 環具는 그 水準(level)에 있어서 建築에 接近한 概念이라고 할 수 있다. 環具는 그 本性에 있어 道具性때문에 「다이내믹」하게 環境과 場의 結成을 構成한다. 즉 生活의 필요에 따라서 환경도 場도 단시간에 形成되고 變形할 수 있다.

도구의 進化는 도구의 생태에 있어서 時間軸에 따른 現象을 관찰하므로써 얻어진다. 그러나 道具世界의 모든 現象은 人間の 그때그때의 世界觀의 反映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도구의 발생이라는 현상도 실은 人間の 造作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人間の 社会運營制度의 하나인 課稅에 關한 法律이 새로운 道具의 發生과 그 体制(system)에 對해 影響을 미치는 수가 빈번하다. 生産組織속에서의 世代的 差(Gap)으로서 일어나는 갈등이 正성성이 빈약한 도구를 만든다. 실은 우리들이 環具의 概念에 도달하고 이것을 具現化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에 頻頻히 부딪혔었다. 그것은 환구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도구에 비교해서 큰 社會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人間の 周圍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를 단지 버려버리기만해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道具相互間의 도구나 人間사

이의 關係가 좀더 나은 主體 環境系를 構成하도록 우리들은 도구세계의 진화현상에 人間の 造作을 가미한 개념을 상기하고 이것을 所謂 綠化라고 부르도록 한 것이다. 착착한 도구세계에 있어서 演化의 方法論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로서 源 가치라고도 부를 수 있는 道具를 찾아내는 것이다. Mumford는 그의 저서 “기계의 神話”에서 「언어는 문화의 커다란 그릇이다», 그러한 생각에서 도구를 고발하고 있다. 즉 石器를 사용하는 능력은 분명히 人間の 풍부한 腦를 필요로 할 것도 없었다. 言語는 최대한의 多樣性和 自律性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例로써 1968年 일본에서 공개된 영화 「2001年의 宇宙旅行」속에서 類人猿이 내던진 公봉이 순간적으로 21世紀의 公중에 떠도는 宇宙船으로 바뀌는 광경이 있었다. 이것은 확실히 道具의 역사를 알기쉽게 해설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公봉은 다른 類人猿의 group을 정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영화의 監督 Kubric가 어떤 意圖가 있었는지 모르나 싸움하는데 사용한 公봉이 어떤 의미에서는 道具의 最高峰이라고 볼 수 있는 宇宙船의 元祖라고 한다면 人間은 그 얼마나 비참하고 殘虐한 存在가 될 것인가? 그래서 道具라는 것은 그러한 暴力的인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 실은 Mumford가 言語의 性質을 嚙라고 한 것은 참으로 그 正反對의 面을 가진 道具의 原型인 것이다. 嚙는 그 속에 넣은 것을 저축하고 보호하고 育成한다. 그속에 들어간 것은 한 개의 완전한 環境인 것이다. 嚙는 물건을 담는 것만이 아니고 배내는 것, 즉 그속에 들어있는 것으로서는 自由, 恐怖, 鍛鍊, 사랑에 대한 出發을 약속한다. 즉 嚙는 道具가 關連된 문화성의 어머니다. 일면으로 보면 그 嚙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道具의 原型이 그 公봉이다. 즉 그 公봉은 道具가 關連된 文明性의 아버지다. 때때로 失敗를 하는 同情해야 할 존재이다. 우리들이 發見한 친구는 道具의 器性的 期待를 걸게 되어 있다. 그러나 道具가 가지는 器性和 公봉의 性格과의 比重은 道具를 만든 人間の 操作에 左右된다. 道具의 思考에 의해서 만들어진 住居空間은 人間을 위한 安식처 또는 空間의 場을 提供하는 器的 環境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